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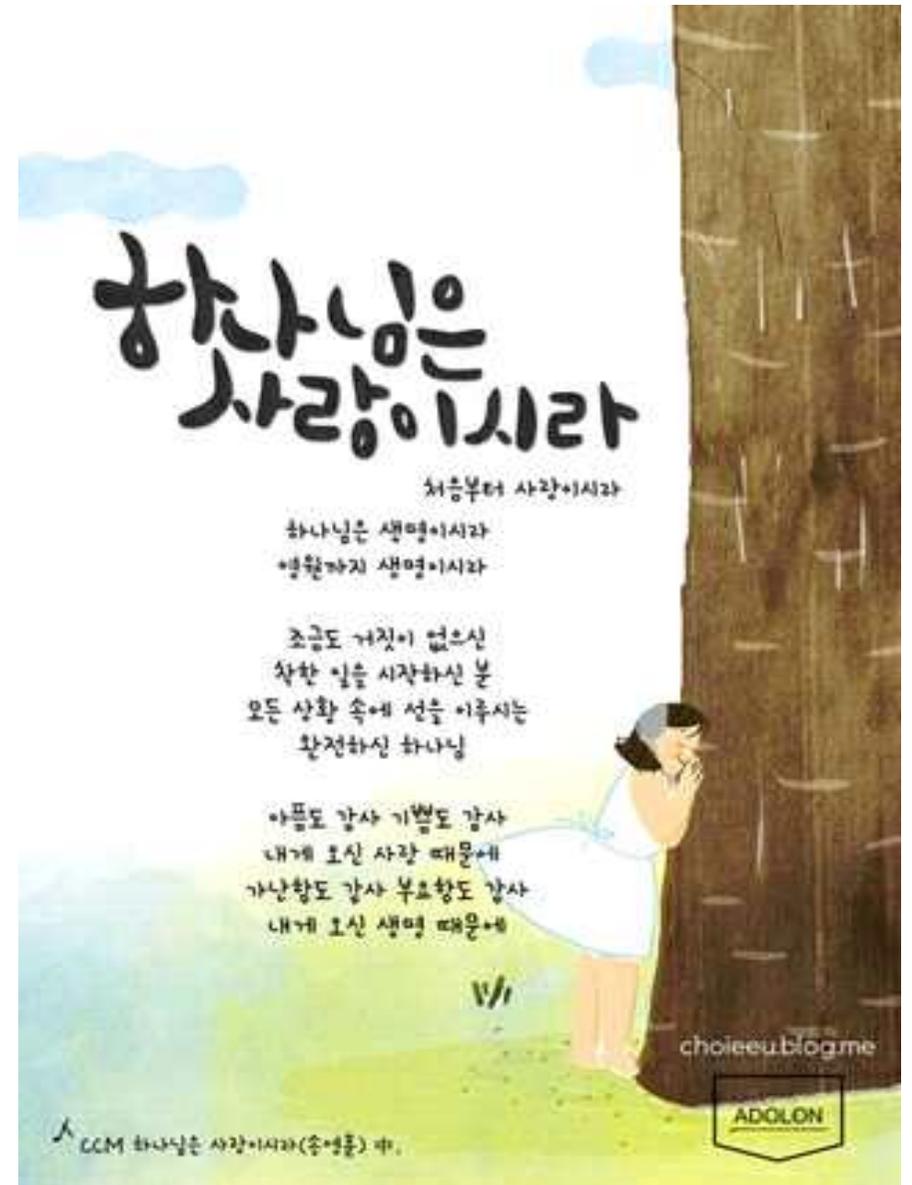
## <성도를 알아가는 질문>

### -현덕규 권사-



1.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19살 청년시절부터 하였습니다.)
2. 고향과 가족사항이 궁금해요.~  
(아산이 고향이고요.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1남 1녀 두었습니다.  
손녀 둘 있고 손자도 둘 있습니다.)
3.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발전소 사무실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4. 요리를 잘하시는데 그 비법이 궁금해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비법은 아니구요. 어릴적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흉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보니 ^^ 부침개와 골뱅이 무침을 잘 하는데요~ 요즘은 음식을 안하다보니 잘 못해요.)
5. 살면서 기뻐던 일, 슬펐던 일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예전 교회에서 부흥회 기도시간에 몸이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땅 바닥 이더군요^^ 슬펐던 적은 전봇대에 다리를 다쳤을 때요. 이제 정상인으로서의 삶이 끝났구나 생각되었어요.)
6.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권사님의 힘으로는 안되었던 가장 어려운 일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식들은 내 맘대로 안되더라고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안타깝죠.)
7. 피부가 백옥 같으신데 그 비결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서일까요? ㅎㅎㅎ^^ 농담이구요~ 기초만 발라요)
8. 자신의 성격의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말씀해 주세요.  
(좋은 점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구요 나쁜 점은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조금 소심해요. )
9. 요즘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텃밭 가꾸기요. 그런데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 지금은 농사꾼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찬양과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싶어요.)
10. 그런 일은 없었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신다면 어느 때에 가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집안이 어려워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11. 권사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엄마를 잃은 외로운 아이였어요. 학교 다닐 땐 공부 열심히 잘하는 모범 학생이 었구요. 그리고 아가씨 때는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에 다녔으며 명량한 성격의 통통한 아가씨였죠.)

2016년도 표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자』 (엡 4:12)	<b>NEW 순복음Life</b> 제4호	발행일 : 2016. 7. 31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	---------------------------	--



## <이달의 신앙간증>

### 김소현 성도



살롱~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7월 입니다!

간증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글로 쓰려고 하니 어떻게 써야할지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요즘 제가 깊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느낀다는 점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를 거쳐 왔는데 나의 걸모습은 교회 잘 다니는 크리스천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의 속마음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술과 담배, 유흥의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지만,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 나타나는 습관적인 언행과 이기적인 생각,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저를 볼 때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주신 심방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데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민이삭 성도님과 함께 성전 밭기를 하고 있는데 두 손을 꼭 잡고 번갈아 가며 소망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간간히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마다 한 번씩 드리는 구역예배도 기다려집니다. 구역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 달 동안 방학을 한다는 것이지만.....

이 기회에 구역장님과 1:1 구역예배를 신청해볼까 합니다. 또한 기다려지는 것은 단연코 "수요일 요한계시록 강해" 입니다. 사모하면 할수록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은혜가 배로 더해집니다. 이제 1장 남겨두고 있는데 끝까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따금씩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까 하는 1인입니다)

오늘도 저희 회사 팀장님께서 '김소현 이번 주에는 구역예배 드리러 안가? 수요일 저녁에만 가는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동안 방학 했어요' 라는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 작게나마 우리 교회를 알리고, 복음의 통로를 열고자 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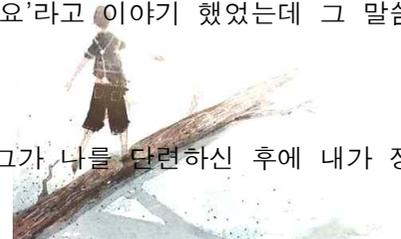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목사님, 성도님들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전 임마누엘학생회 헌신예배 때 성도님들 각각에게 말씀카드를 나눠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김연훈 청년이 저에게 말씀카드를 전해주면서 '누나를 생각하면서 골랐어요'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 말씀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아멘.

저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하반기도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더욱 더 성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 성경 숨은 그림 찾기



12. 교회는 ..... 다. ( 사랑 )
13. 자식은 ..... 다. ( 행복 )
14. 믿음은 ..... 다. ( 내가 사는 이유 )
1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세 가지만 적어주세요~  
(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구요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 세 번째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꼭겠습니다. )
16.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 권사님으로 유명한데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요?  
(기도를 잘 못해서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제가 더 기쁨이 넘쳐요.)
17. 권사님께 신앙의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누구세요?  
(먼저는 제안에 계신 주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전도사님요. 제가 갈길 몰라 방향할 때 전도사님께서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월요기도회 시간은 제 게 아주 행복한 시간이예요. 전도사님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려요.)
18. 권사님께서 붙잡고 돌아가시는 말씀 구절이 궁금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19. 우리교회에 이제 막 성도로서 입문한 신장내기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너무 예쁘세요. 어쩔 그렇게 열심히신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 변치 말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20. 주님께서 일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던 기분 좋은 사건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경매 때 저는 신용불량자라 정상적인 대출이 안됐어요. 그때 농협 다니시는 어떤 분이 선 대출을 선뜻 해주셔서 아파트 입찰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21. 권사님께서 일하시고 싶은 교회의 팀 또는 위원회가 궁금해요.  
(산책팀에서 일하고 싶어요. 소녀시절부터 해질녘에 오솔길 걷고 산책하며 살고 싶었거든요.)
22. 성경의 인물 중 권사님의 롤 모델 인물과 이유를 적어주세요.  
(모세요~ 백성들을 위해 목숨도 불사했던 그 충성된 희생정신을 본받고 싶어요.)
23. 목사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24. 신앙의 비전을 적어주세요.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 2016년 7월 둘째주 주일의 셋별 유치부 모습



### <주일 학교 소식>

7월 둘째 주 셋별 유치부 2부 순서는

더운 여름을 맞아 다 같이 재미있게 부채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재료로는 기본 부채 틀과 올록볼록 스티커, 반짝이 스티커, 그리고 크레파스가 필요했지요.

모두 13명 어린이가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재미있는 부채 만들기 시간~~ 유치부 선생님 여섯 분이 아이들을 각각 두세 어린이씩 맡아 만들기가 진행되었어요.

사실 유치부의 만들기 시간은 선생님들의 즐거운 헌신의 시간이지요.^^ “선생님 요렇게 해요?” “선생님 저거 주세요!” “선생님 예쁘지요?” “선생님 그만해도 되요?” 등등

어린 꼬마들의 설 새 없는 질문에 답할 뿐 아니라 때로는 만들다 말고 뽀박질을 정신없이 해대는 친구를 잠잠케 해야 하는 사명도 감당해야하지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엔 힘든 모습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선생님들은 올망졸망 모여 앉아 그림을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없이 따뜻한 미소를 짓곤 하셨지요. 어린이들은 저마다의 생각대로 열심히 집중하며 부채를 장식해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하얗기만 했던 부채들이 색을 입어 알록달록해지고 귀여운 물고기들이 헤엄도 치며, 예쁜 꽃들이 즐겁게 춤도 추는 제법 모양새 있는 부채가 되어서 갔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은아와 수현이의 부채는 마치 멋진 예술작품과도 같았어요. 부채가 완성되고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자랑하며 즐거워하였어요. 더울 때 부치는 부채지만, 우리 셋별 유치부 어린이들의 부채는 비행기고 스케치북이고 누구누구에게겐 멋진 검사의 칼이 되었네요. 만들기를 다 마치고 간식시간~~

간식은 쭈쭈바였어요.

역시 더운 여름엔 부채와 쭈쭈바가 최고 인 것 같아요. ㅎㅎㅎ 셋별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올 여름도 주님 안에서 한 군데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약속해요.^^

# 예수님을 믿는 비용

예수님을 믿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가장 교단에서 가장 큰 한신교회를 목회하셨고, 총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골이지만 자수성가한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전도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먼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남편도 함께 교회에 출석하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어느 주일날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그 남편이 목사님께 심방을 요청했습니다. 이튿날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서 집안도 살피고 심방예배도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남편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시골에서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니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들으니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성당을 다니면 돈이 적게 든다는 말도 들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반문을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야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담배 값 정도면 믿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담배를 끊어야 하니 평소엔 담배를 사던 돈 만큼만 헌금을 해도 되면 믿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정도면 충분하니 열심히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래요. 거 비용 얼마 안 드네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일이면 틀림없이 교회에 출석했고, 담배를 끊고, 한 주간동안 담배를 사던 돈을 모아 헌금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감사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 년을 지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일 년이 지났으니 세례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부인에게 물었더니,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세례를 받으면 십일조를 내야 하니까 세례는 받지 않고, 십일조도 내지 않고 이대로 교회만 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주 완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목사님께 넌지시 물었습니다.

# \* 심판과 구원의 사건 - essay.3/2 -



**\* 뉘가 나면 너희가 보고 여럿이 가까운 돌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돌을 알라(눅21:30~31)**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빔월의 쟁안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찌짚암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출 23장14절-17절)



# 시사용어 Briefing

## 1.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economy class syndrome)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이란 좁고 불편한 비행기의 좁은 일반석에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리가 붓고, 심할 경우 혈액응고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일본 구마모토지진으로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는 피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으로 고생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 2. 액티브 시니어 (active senior)

액티브 시니어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탄탄한 구매력을 가진 50~60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즉, '건강하고 활동적인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조어는 미국 시카고대 버니스 뉴가튼 교수가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노인과 다르다"고 말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 3. 위미노믹스 (womenomics)

위미노믹스는 여성(women) + 경제 (economics)의 합성어로 활발해진 여성의 경제활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2006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앞으로 여성이 상거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 4. 커넥티드카 (connected car)

커넥티드카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양방향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무선으로 다른 차량이나 교통 인프라와 통신하며 실시간 내비게이션, 위험경고, 원격 차량제어 및 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메일,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SNS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십일조를 드릴려면 농사비용을 빼고 십일조를 합니까? 아니면 수확 전체의 십일조를 합니까?”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농사비용을 빼고 하거나 그냥 수확 전체의 십일조를 하거나 둘 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십일조입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요? 농사비용 빼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요.”

그러더니 그해 가을에 그는 꼼꼼히 계산해서 쌀 두가마니를 십일조로 드렸습니다. 비용을 뺀 것이었습니다. 순 이익의 십일조였지요.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가을에는 더욱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농사가 더 늘어 난 것도 아닌데 십일조로 쌀 열 가마니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확의 십일조를 바친 것입니다. 비용을 조금도 빼지 않은 십일조였습니다. 온전한 십일조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고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예수님 믿는 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목사님의 질문에 그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싸구려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싸구려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싸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고귀하신 분을 비싸게 믿는 게 당연하지요. 이제는 예수님 믿는 비용이 늘어 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던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확의 십일조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더 많은 농사를 지어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칼 바르트 목사님은 “내가 받은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구려로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비싸게 취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세요.

샬롬~^^♥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일하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딤후 4:10-13)

2016.7.17  
 교사회 헌신예배



## <맛있는 제철요리>

### 감자



#### <재료준비>

삶은 감자6개, 베이컨10장, 식물성버터, 소금, 설탕, 허브가루, 피자치즈

#### 1번째요리

감자를 삶아서 웨지감자를 쓰면 훨씬 시간이 단축되어 좋아요.

감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후 버터를 전자렌지에 살짝 돌려서 녹여주세요

그런 후 밀간으로 소금 한꼬집, 설탕 한꼬집, 허브가루 약간 넣어 주세요  
녹인 버터를 넣고 잘 버무려준 후 달군 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완성 .. 아이들에 입맛에 맞게 달달한 꿀을 뿌려주시면  
고소한 버터향이 더해져서 더 맛있답니다.

#### 2번째요리

소금을 넣고 감자를 삶아주세요

찢감자를 세워질수 있도록 위아래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감자 윗부분을 파내고 모짜렐라 피자치즈를 넣어 주세요

감자 겉면은 베이컨으로 돌돌 말아 감싼 후 고정해주세요

예열된 오븐에 구워주시면 돼요

가끔 겉이 타지 않는지 눈으로 확인해주세요

감자요리는 뭐니뭐니해도 따뜻하고 살짝 뜨거울 때 먹어야죠

맛도 영양도 좋은 감자로 색다른 영양간식 만들어보세요



## <이달에 issue>



무더운 여름철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 되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해수욕장, 계곡 등을 찾는 피서객으로 피서지가 북적이고 있다. 그만큼 안전수칙을 꼭 지키며 물놀이를 즐겨야 하지만 나하나 쯤이야 하는 마음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

바다에서는 파도에 떠밀리거나 수초, 암초 등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각종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외에도 계곡과 물놀이 시설들도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안전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반듯이 지켜야한다.

우리에 목숨을 주신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본인의 뜻대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듯이 물놀이 전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물놀이 안전수칙]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물에서 나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직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유머>

## 코끼리 유머

코끼리 조련사가 수많은 군중 가운데 코끼리를 세워 놓고 말했습니다.

“이 코끼리는 감정표현을 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슬프면 울기도 하고 놀라게 하면 펄쩍 펄쩍 뛰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이 코끼리를 울려 보겠습니까?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끼리를 울리려고 때리기도 하고 연기로 맵게도 만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때 목사님 한 분이 나서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울려 보지요.”

그리고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 하였습니다.

코끼리는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련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울었나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였더니 저렇게 울더군요.”

조련사는 또 말했습니다.

“코끼리를 놀라게 하여 펄쩍 펄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코끼리를 놀라게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 때 그 목사님이 나오더니 또 말했습니다.

“내가 이 코끼리를 한번 놀라게 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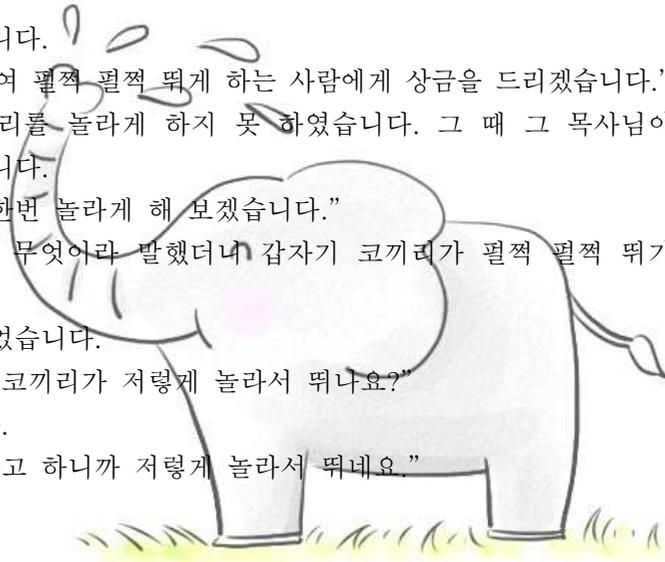
그리고 코끼리 귀에 무엇이냐 말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펄쩍 펄쩍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련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엇이라 말했기에 코끼리가 저렇게 놀라서 뛰나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같이 교회 개척하자고 하니깐 저렇게 놀라서 뛰네요.”



## 1. 고양이와 성경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는 한 아이는 고양이 소리를 정말 그럴듯하게 냅니다.

“이야. 넌 진짜 캣츠다! 어쩜 그렇게 고양이 소리를 낼 수 있니?”

“우리 집에 어미 고양이는 새끼를 정말 여러 번 낳았어요. 이번에도 세 마리나 낳았어요. 제가 '냐옹'하고 부르면 '니야옹' 하고 대답도 해요”

아하.. 오랫동안 고양이와 함께 살았구나! 고양이와 오래 살다보니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승을 만나면 김승의 말을 배우고 신을 만나면 신의 말을 배웁니다.

김승을 만나면 김승의 소리를 하고 신을 만나면 신의 소리를 합니다.

주식에 미쳐있는 사람을 만나면 매일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만 하고, 땅에 미쳐있는 사람을 만나면 매일 전국의 돈 되는 땅 찾아다니는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누구와 만나며 나는 어떤 소리를 내는가? 나는 살면서 다른 이야기에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하고 귀를 종긋 세우게 하는 것은 성경이야기입니다.

내가 살면서 성경을 만났다는 사실은 정말 기가막힌 축복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버스를 놓치고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잠을 잤는데, 그 집 뒷방에서 반쯤 접혀 쌀가마니 밑에 괴어있던 손바닥만 한 쪽복음 성경을 발견하고 뭔가? 호기심에서 입었던 성경을 지금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읽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구별에 여행 와서 성경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이 여행이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 평생의 동반자인 성경을 펼쳐놓고 놀람과 환희, 감동을 받습니다. 오오! 할렐루야. 아멘

## 2. 성경 집짓기

흙집을 한 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흙집을 보면 달려가서 사진을 찍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트로베하우스 공법으로 짓는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단순한 흙집이라도 흙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무, 돌, 시멘트, 못 그밖에 수없이 많은 다른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다 준비했고 그래서 재료들을 한 자리에 쏟아 붓는다고 바로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쓰레기더미에 불과할 뿐입니다. 재료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원하는 모양의 집을 만드는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할 때 아무 계획도 질서도 체계도 없이 자기의 마음에 들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맘에 들지 않으면 비켜가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여 속이는 가르침은 오히려 불손증하는 사람이나, 진리에 대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만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순종하세요.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성경만큼 정확하고 탁월한 안내서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되 자기 맘대로 읽지 말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읽는 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것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아름답고 균형 잡힌 예쁜 집을 지으세요.



◎ 이달의 교회소식

1. 8월 생활실천표어 / 하나님께 집중하라
2. 하계연합수련회 / 8월 1일~4일 주제 : 비움과 채움  
푸른초장교회, 순복음신일교회, 당진순복음교회
3. 침례식 / 8월 2일 안면도해수욕장  
장원준 유영민 유진경 유진희 정서 박순옥 김학순
4. 학생의 날 / 8월 8일~9일
5. 여름성경학교 / 8월 19일~21일 주제 : 기록
6. 주교헌신예배 / 8월 21일
7. 구역장간담회 / 8월 30일

◎ 공지사항

1. 방학 / 7월 18일~8월 20일 새벽기도회, 구역예배
2. 여름철 건강관리 / 음식, 휴식, 운동

◎ 이달의 교우소식

1. 군 휴가 / 김성광청년 - 7월 28일~8월 6일  
김연훈청년 - 8월 1일~10일

문서위원회

- 위원장 : 김미진 집사  
 위 원 :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권찰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성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하나님께 올리는 편지>

박순옥 성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에 바빴고 '나' 라는 자아는 잊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헌신하며 사는 것이 당연했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저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이도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저를 알아주는 이도 없었고 저는 세상에 속해 살면서 존재감 없이 사는 자였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괴롭고 속상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라는 존재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귀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저로서는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였고 하나님을 왜 알아야하며 왜 의지를 해야 하는지를 몰랐지만 목사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참는 법을 알게 되었고 쉽게 화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또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많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심장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어수룩하나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께 발자국을 떼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살았던 세상을 한순간에 다 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세상과의 이별을 준비하며 주님께 기쁨되는 자녀가 되고자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제 스스로가 변화되어 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 <새 가족 소개>

### 소종욱 성도, 윤경선 성도 부부

우리 교회에 아주 어여쁜 부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새로운 가족으로 오셨네요. 과묵하고 진지하고 호기심 많아 보이는 소종욱 성도님과 수줍음 많고 눈웃음이 예쁜 윤경선 성도님입니다. 인천에서 살림을 살다가 직장 문제로 당진에 오셨다고 해요.



새벽 제단이 너무 쌀고 싶은 마음에 순복음 교단을 찾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당진순복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2008년 대학교 때 학원 동료로 만나 긴 연애로 달콤한 시간을 가졌고 2014년 11월 22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슬하에 자녀는 없지만 1남 1녀의 소박한 자녀계획을 세우며 아직은 신혼의 깨소금 내를 풍기는 부러운 부부지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아주 흐뭇하고 어여쁜 부부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너무 상투적이지만, 그래도 그 어떤 말로도 대체 할 수 없다하시며 가족 같은 모습을 꼽으셨답니다. 당진으로 이사 와서 의지할 곳 없고 아는 사람 없어서 너무 외롭고 쓸쓸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니 성도님들이 챙겨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말동무 해 주시고 등등..... 너무 좋으시네요. 윤경선 성도님은 꼭 친정 같다고 고백하셨답니다. 우리 교회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기도 팍팍!! 관심 팍팍!! 부탁드립니다~

또 **목사님을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쭙봤더니 짧고 명쾌하게 “교장선생님 같아요” 라고~ 철저하시고 엄격하신 신앙교육인데요. 성도들에게만 엄격하시고 철저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에게도 철저하신 부분이 너무 존경스러우시네요. 어쩐^^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신지** 던진 질문에 소종욱 성도님께서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도들에게 베이스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고, 우리 윤경선 성도님께서서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잘 한 대요. 수줍어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아내 대신 소종욱 성도님께서 살짝 알려 주시더라고요. 신앙교육 잘 받아 주일학교 교사 하면 영광이라고요. 며칠 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을 가정으로 맞이하여 등록 심방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라’는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섬기던 인천의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의 ‘하나님 아는 것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많이 아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릇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인 가족 뒀을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부부를 향해 세우신 계획을 알토랑 지고 맛깔나게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 그리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 <이달의 기도>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기 8장 6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처음으로  
그리고 처음에서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특별히 감사구역의 영적 회복과  
신앙의 조그마한 변화를 보면서  
이제는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일에는 무관심하며  
주님의 일에는 더욱 열심을 주시고  
나 자신에 대해선 철저하며  
모든 사람에겐 사랑을 베풀며  
세상을 향해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정을 믿음의 반석위에 굳건히 세우고  
믿음의 가장으로써 온전한 신앙으로 양육하며  
기복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목자를 올바르게 협력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김형진 집사